



두 번째 순모임 나눔

예배는 0-순위입니다

● 들어가며

여행하다가 보면 호텔에서 개인이 혼자 방을 쓸 때도 있지만 호스텔 또는 게스트 하우스와 같이 한 방을 3명에서 10명까지도 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에서도 이런 호스텔과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예수님만을 따르고 그분만을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어찌면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 예배 시간에 찬양하는 많은 사람은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만을 놓기보다는 나의 마음 안에 예수님과 다른 손님들이 그 공간을 나눠 쓰도록 줄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서 오직 전심을 쏟는 관계만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오직 그분만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와도 우리의 사랑을 나누지 않겠다고 하신 것은 단순히 전적인 사랑을 받기만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절대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 본문 함께 읽기: 누가복음 14장 25~27절

말씀 핵심 포인트: 예배는 나의 ()를 재정비하기를 요구합니다.

1. 예수님께서서는 ()을 요구하십니다.
2. 예배자가 된다는 것은 내 삶에서 예수님이 ()가 된다는 것입니다.
3. 예배자는 그 무엇보다 예수님을 더 ()해야 합니다.

● 적용하기

1. 지금 나의 삶에서 나의 우선순위를 1-5까지 적어 보세요.
2. 예수님이 나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된다는 것은 각자의 삶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요?
3. 지난주에 성경 필사를 하면서 받은 은혜를 나누어 주세요.

● 다음 주를 위한 준비

1. 성경 필사: (공동체) 누가복음 14장 25~27절, (개인) 시편 23편부터 47편까지 필사하세요.
2. 나의 가정에서 어떻게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고 또 살아가고 있는지 나눔 준비를 해주세요.